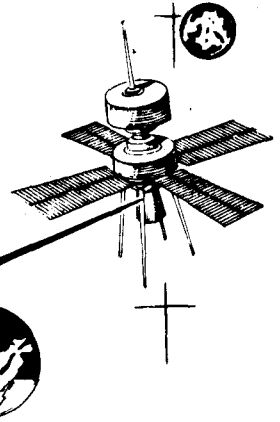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다양성안에서의 일치와 나누는 다양성이 아닌 보완적인 다양성이어야

또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양계인들은 그렇게 희망차고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에 부푼 새해이기 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87년 후반기 육계가격이 장기간에 걸친 생산비 이하로 유지되었고 한때는 병아리 값도 안되는 300원 미만으로까지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른 노계도태가 되지 않아 채란양계까지 불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불황은 생산자의 목소리가 커지게 하였는데 "낙농인연합회" "전국육계농가안정협의회" 등의 새로운 단체들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획일 독재가 아닌 민주적 합일(合一)이 이루어지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一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발전적이고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다양성은 산업을 더욱 풍요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나누는 다양성이 아니고 보충하는 다양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배타적이 아니고 보완적 이려면 뿌리가 같아야 하는데 그 뿌리는 축산업을 보람있는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뿌리가 같지 않고는 실질적인 단결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제는 우리업계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일이 값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1일자 D일보는 1월중에 호텔용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크게 보도하였는데 우리 축산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호텔용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 것만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슬우화의 천막 안에서 자는 주인에게 천막 밖의 약대가 처음에는 날씨가 추우니 얼굴만 천막안에 넣고 자고 하다 주인이 허락하니 다음은 앞발 다음은 뒷발까지 온몸이 다들어오고 다음은 주인을 천막 밖으로 쫓아내고 약대가 천막을 독차지하고 편하게 자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텔용 쇠고기 수입 보도를 보고 이 우화가 자주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밤에 촛불을 끄고 촛불이 꺼졌다 성냥불을 키고 확인할 필요야 없겠지만 확인 재확인 해야될 일들이 너무 많은 한해가 될 것 같다.



새해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12월은 온통 대통령 선거만이 있었던 달 같았다.

이제 선거도 끝나고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개막된다.

새술은 새부대에 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새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민정당공약(公約)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을 알아 본다.

첫째, 농어민이 농수산물 가격 결정에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계란이나 닭고기 값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생산자가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가구당 소득이 년1,300만원이 되며 근로자의 임금은 800만원이 된다. 국민 1인당 GNP가 5,000 \$ 이(약 4백만원)되니 4인 가족으로 하면 년 가구당 1,600만원이 된다. 양계를 해서 연간 소득이 1,600만원이 되려면 채란계와 육계의 경우로 나누어 적정 규모를 새로 산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업원도 연간 8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면서 말이다. 새로운 한국적 양계경영 모델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급여 인상은 필연적으로 농장의 기계화 성력화의 강한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째, 농수축협 조합장의 직선제가 실시된다. 양계산업의 문제점이 생산 이후의 유통분야에 더 많이 있고 최근 문제되기 시작한 영세 양계농장의 보호를 위해서도 앞으로 협동조합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낙농산업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이듯이 양계산업에서도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용은 꼭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계열주체로 유통 소비 가공 처리에 참여할 때 양계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네째, 농업재해보상 보험제도 실시이다. 양계산업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업도 드물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 각부문의 가치와 자율 보장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는 스스로 산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키는데 의사 결정을 양계인 스스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양계인이 진다는 뜻이 된다. 물론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겠지만 기본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발전해야 하고 따라서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88년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다고 양계산업이 저절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양계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양계**